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 의학기록

김 원 곤*

The First Written Medical Record on Thoracic Surgery in Korean History

Won Gon Kim, M.D., Ph.D.*

On Dec 22, 1909, a young patriot called Lee Jae-Myung (1886~1910) attempted to assassinate Lee Wan-Yong, the prime minister of the last Yi Choseon cabinet and he later signed the annexation treaty with imperial Japan. Despite that Lee Jae-Myung failed in this assassination attempt, his heroic deed motivated national pride thereafter. After this attempted assassination, a medical record was prepared about stab wound that was inflicted upon Lee Wan-Yong during the trial of Lee Jae-Myung, and this record included many significant specific descriptions that were concerned with thoracic surgery. They included an intercostal stab wound and intercostal arterial hemorrhage, lung injury, chest contusion, traumatic pleuritis and supposedly pneumo- and hemothorax. Thoracentesis for drainage of the serosanguinous pleural effusion was also mentioned. This medical record is judged to be the first written medical record on thoracic surgery in Korean histo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record as it is related with a well known episode in modern Korean history.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813-820)

Key words: 1. History
2. History of medical care

연구배경

오늘날 각종 첨단 의학 장비와 기술로 무장된 '외과'라는 의학 분야도 정작 그 뿌리를 따지고 보면 너무나 원시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득한 옛날 생존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과정에서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끼리 벌어진 싸움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수반된 출혈이나 상처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라도 외과적 치료가 이루어 졌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상상에 따라서는 사나운 동물에게 상처를 입은 아기를 치료해 보려는 절박한 심정의 어머니가 외과의사의 효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 외과에서 분화된 한 전문분야로서의 흉부외과 역시 이러한 점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원인으로 흉부외상을 입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옳든 그르든 온갖 외과적 치료가 시도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가 없던 그 옛날의 상황에 관해서는 상상 이상의 과학적 추론은 어차피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문자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과학적 서술로 직결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래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의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단지 <가슴에 칼을 맞고 쓰러졌다>라든지 <심장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등의 표현 이상의 기술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그 자체로서의 역사적 의미는 있겠으나 학술적인 관점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병원 일반연구비(04-2008-080)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논문접수일 : 2008년 12월 18일, 논문수정일 : 2009년 1월 22일, 심사통과일 : 2009년 3월 9일

책임저자 : 김원곤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Tel) 02-2072-2346, (Fax) 02-747-5245, E-mail: wongon@plaza.snu.ac.kr

본 논문의 저작권 및 전자매체의 지적소유권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있다.



Fig. 1. (A) Lee Jae-Myung, (B) Lee Wan-Yong.

에서 흉부외과적 기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역사상 이른바 <흉부외과적 기술>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최초의 기록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우리나라에서 흉부외과가 임상과로 공식적으로 독립된 것은 1950년대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각종 관련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비록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지만 현대 의학 기법의 소개로 누골카리에스나 농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가 일부 이루어졌고 따라서 이에 관한 기록도 노력하면 단편적이거나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2].

그러나 그 이전의 흉부외과 관련 기록은 과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만일 있다면 과연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을까?

바로 이러한 호사가적인 궁금증이 이 논문이 탄생하게 된 연구배경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적 기술>로 생각되는 기록의 발굴과 함께 이에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흉부외과와 관련된 초기 흔적의 일단을 파악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조사자료 및 방법

이 글에서 최초의 <흉부외과적 기술>로 생각되는 흉부외상 진단소견의 원문은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사연구소의 전우용 박사의 도움으로 입수하였다. 그리고 이 진단소견에 연관된 역사적 사실의 파악은 대부분 박상우의 역사소설 <칼>과 김삼우의 논문 <의사 이재명의 삶과 죽음>을 참조하였다[3,4]. 사건이 발생한 구한말의 의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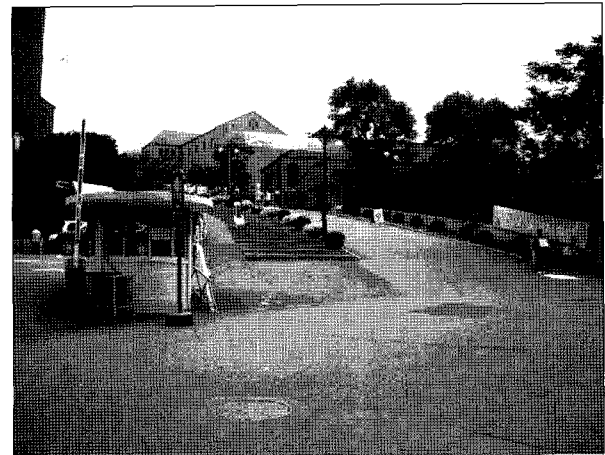


Fig. 2. An overall view of the Myung-Dong Cathedral.

황에 관한 사실은 관련 단행본을 참조하였다[5]. 그 외 각종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기타 관계자 증언 등이 참고되었다.

본 문

1) 사건의 발단과 전개

1909년 12월 22일 오전 경성 종현천주교회당(지금의 명동성당)의 문밖에는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11시 30분경이 되자 당시 대한제국의 매우 높은 고관대작으로 보이는 사람이 인력거를 타고 천주교회당을 나왔다. 인력거 앞뒤로는 각각 자전거를 탄 두 명씩의 무장 경관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인력거가 바로 청년의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청년은 갑자기 비수를 꺼내 들고 인력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인력거꾼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칼에 찔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청년은 곧 이어 깜짝 놀라 몸을 숙이는 고관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 어깨를 찔리면서 부상을 입은 고관이 중심을 잃고 인력거에서 굴러 떨어지자 자객은 재차 그를 공격하여 오른쪽 등을 칼로 찔렀다. 주변은 순식간에 유혈이 낭자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자객은 고관을 경호하던 호위경관의 장검에 허벅지를 찔리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완용 암살미수 사건>으로 불리어지는 역사적 사건의 핵심 내용이다. 이른바 을사오적의 대표자격인 이완용을 칼로 찔른 자객은 당시 21세의 청년 이재명(1896~1910)이었다(Fig. 1A). 그리고 그때 이완용은 며칠 전 사망한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모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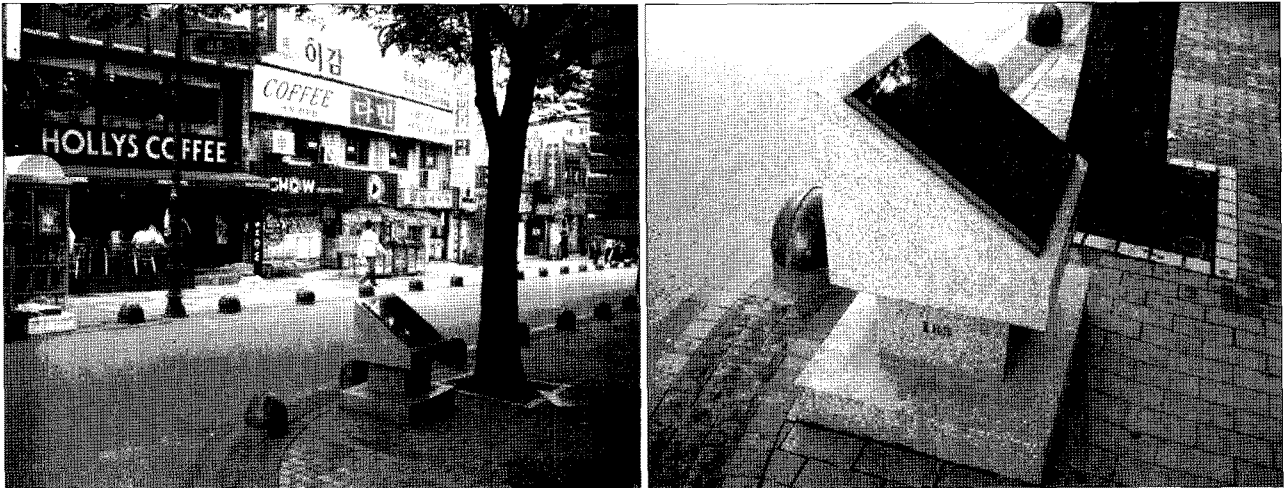


Fig. 3. A stone monument for the late Lee Jae-Myung in front of the current Myung-Dong cathedral.

오전 11시 부터 종현 천주교회당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Fig. 1B). 당시 대한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영세중립국화를 목표로 1901년 부터 중립국인 벨기에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상태로 매우 우호적인 외교관계에 있었다[5].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직후 이재명은 혼수상태의 이완용을 보고 경찰에 끌려가면서 암살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Fig. 2, 3). 그러나 이완용은 많은 출혈로 비록 중한 상태였으나 생명은 유지한 채 그의 옥인동 집으로 옮겨졌다. 연락을 받고 한성병원의 일본인 의사가 급히 도착하였고 이어서 당시 대한제국의 최고 의료기관인 대한의원 원장 기쿠치 쓰네사부로(菊池常三郎)가 두명의 의사와 두명의 간호원과 함께 달려왔다. 궁전 전의 두 명도 도착하였다.

이완용은 밤새 이들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으며 고비를 넘긴 다음 이튿날 대한의원으로 옮겨져 오후 3시 50분부터 50분 정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완용은 대한의원 홍화당 제5호실(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시계탑 건물)에 입원하였다.

이후 이완용은 순조롭게 회복되면서 입원한지 33일 만에 혼자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53일이 지난 1910년 2월 14일에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완용의 상처와 감정서

이재명은 <이완용 암살미수 사건> 직후 체포된 뒤 인근 구리개(지금의 을지로) 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과 심문 과정을 거친 뒤 이듬해인 1910년 1월 29일 재판에 공

식 기소되었다. 당시는 이미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일본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은 통역이 배석한 가운데 일본인 재판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완용이 이재명의 칼에 의해 입은 상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바로 이때 재판을 위해 대한의원 의사에 의해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상해 감정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당시 대한의원의 의관이었던 스즈키(鈴木講之助)에 의해 작성된 감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Fig. 4) (번역은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였으나 원문 자체가 워낙 옛날 일본식 한문 표현이 강하여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역하였다-저자 주).

감정서(鑑定書)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53세

명치 42년 12월 22일 이완용의 창상에 관하여 경성지방 재판소 검사 이토(伊藤德順)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정하도록 명을 받아

1. 창상의 위치 및 심천
2. 흉기의 종류
3. 창상의 경과
4. 예후의 양부

감정 한바는 다음과 같다.

1. 창상의 위치 및 깊이(深淺)
(갑) 좌견갑골 내측 상부의 자창
폭 7 cm 깊이 6 cm

제 2, 제 3 늑간을 자동하면서 제 2 늑골의 하연을 잘라 늑간동맥을 절단하여 과다 출혈을 일으키고 또한 폐를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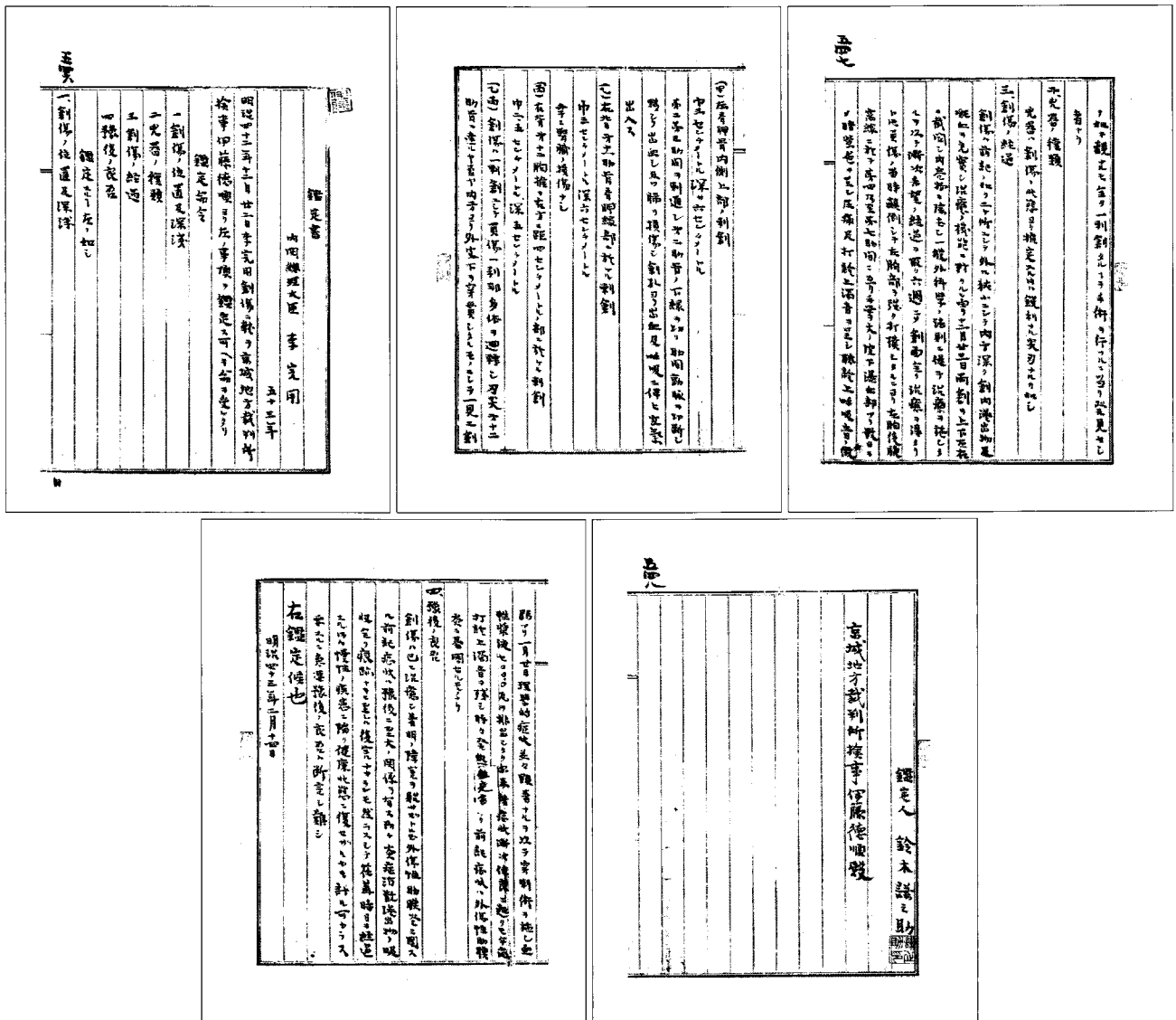


Fig. 4. The copy of the medical certificate for Lee Wan-Yong.

상하여 창공으로부터 출혈 및 호흡에 수반된 공기 출입이 있었다.

(을) 오른쪽 등(右背) 제 11 늑골 견갑연부(肩胛緣部)에 있는 자창

폭 3 cm, 깊이 6 cm

다행히도 신장의 손상은 없었다.

(병) 오른쪽 등(右背) 제 12 흉후에서 우방으로 4 cm 떨어진 곳의 자창

폭 2.5 cm, 깊이 5 cm

(을병) 창상은 하나의 자창으로서 부상의 찰나에 신체를 회전하여 칼끝이 제 12 늑골에 닿을 듯 말듯

한 후에 외피 아래쪽으로 뚫고 나온 것으로 일견 2개의 상처로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의 자창으로 이는 수술을 시행할 당시 발견된 것이다.

2. 흉기의 종류

흉기는 창상의 상태로부터 추정한바 예리한 침도로 생각됨

3. 창상의 경과

창상 앞 부분은 2개소로 바깥은 좁고 속은 깊었다. 창상 내의 삼출물 및 응혈을 치료하여 기능을 회복하고자 12월 23일 양창을 상하좌우로 절개하여 내용물을 제거하였다. 외과학의 제척에 따라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점차 소망한

결과를 거두고 6주 만에 창면(創面)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다. 부상 당시 얻어져서 좌흉부를 강하게 타박 당했음으로 왼쪽 가슴의 후액와연(後腋窩緣)에 제 4 늑간에서 제 7 늑간에 걸쳐 손바닥 크기의 피멍이 생겼는데 수일 만에 암자색으로 변하였다. 압통 및 타진상 탁음이 들리면서 청진상으로는 호흡음이 미약하였는데, 1월 20일 이학적 증상이 더욱 현저해져 천자술을 시행하여 혈성장액 700 mL를 배출하였다. 상태는 점차 좋아졌으나 타진상 탁음을 남기고 있고 때때로 발열이 있는바 전기(前記) 증상은 외상성 늑막염에 기인한 것이다.

4. 예후의 양부(良否)

창상은 이미 치유되어 뚜렷한 장애를 남기지 않았지만 앞서 말한 외상성 늑막염에 따른 증상은 예후에 큰 관계가 있다. 즉 염증성 삼출물의 흡수가 전혀 흔적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지면 후유증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좀 더 시일이 경과하여야만 만성질환으로 남을지 건강상태로 회복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당장은 예후의 좋고 나쁨(良否)을 단언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본 감정서에는 명백하게 늑골하면 자상, 늑간동맥 출혈, 폐손상, 좌흉부타박상, 외상성 늑막염 등의 흉부외과 전문 병명이 언급되고 있으며 또한 기흉과 혈흉을 의미하는 기술(폐를 손상하여 창공으로부터 출혈 및 호흡에 수반된 공기 출입이 있었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 5). 그리고 흉부천자술에 의한 혈성 삼출액 배출이라는 외과적 시술에 관해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재명의 삶과 죽음

경성지방법관소에서의 몇 차례 공판 결과 이재명은 1910년 5월 18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7월 20일 열린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고 8월 13일 고등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재명은 결국 9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면 불과 스물 두 살의 젊은 나이로 애국지사로서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재명은 고아로 가난한 양부 밑에서 자란데다, 그 자신도 동향의 여자와 결혼은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손은 없었다. 더구나 이완용 암살 기도 사건 이후 바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록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부정확하거나 혼선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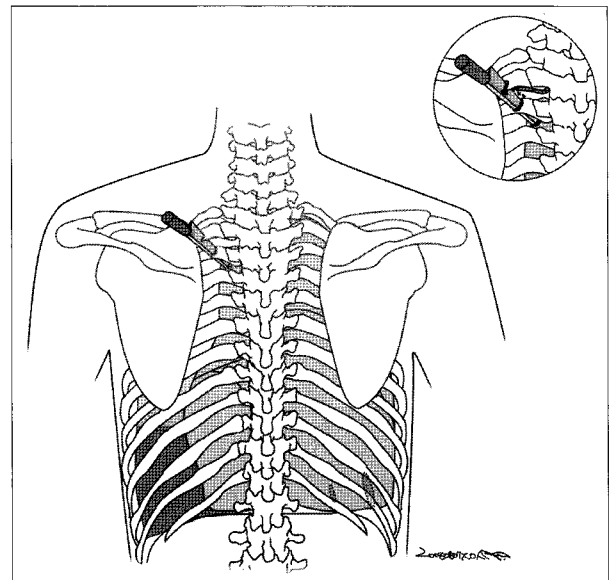


Fig. 5. Schematic drawing showing injuries inflicted upon Lee Wan-Yong.

이재명은 1888년(1886년 또는 1890년이라는 설도 있다.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 있는 표지석에도 출생년도도 1890년으로 표시되어 있다.) 4월 8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하였다. 어렸을 때 양친을 잃고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1904년 16세가 되던 해에 미국노동이민사의 하와이 노동 이민자 모집에 응모하여 이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1906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도산 안창호가 회장으로 있던 <한인공립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격적인 민족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이준 열사의 순국 소식을 접한 후 매국노 숙청을 결심하고 그해 가을 귀국하였다. 이후 동지를 규합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190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을 시도하던 중 10월 26일 안중근의사에 의해 이토가 처단되자 11월 하순경 목표를 바꾸어 평양에서 동지들과 이완용, 이용구 등을 처단하기로 의논하였다. 이때 이재명의 동지들 중에서는 당시 대한의원 의학원(경성의전의 전신) 학생이었던 김용문과 오복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재명은 12월 12일 상경하여 이미 한성에 와 있었던 김용문, 이동수, 김병록 등과 함께 거사의 기회를 엿보던 중 앞서 말한 12월 22일 오전 중현 천주교회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이완용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사를 결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고찰 및 결론

처음 또는 최초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매력에 있는 말이다. 모든 분야에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학문의 세계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물론 간혹 최초 업적에 대한 인간적 공명심으로 부질없는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문 분야에서든 처음에 관련된 초기의 모습을 추적해 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작업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한국사에서 흉부외과에 관련된 기술이 언제 최초로 이루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은 흉부외과에 관련된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의미가 있으면서 흥미진진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거론된 <이완용 암살미수 사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국내의 전반적인 의료 환경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즉 당시는 대한제국의 국호 아래 정치적으로는 일본제국의 한반도 완전 지배의 야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사회 전반의 크고 작은 분야들에서도 일제의 영향이 곳곳에 침투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일찍이 서구 문화와 함께 서양의학을 받아들였고 1876년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 이후 서양 근대의학을 조선에 소개하고 있었다. 미국 역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의료 기술을 통한 본격적인 선교의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5]. 이는 1884년 12월 4일 발생한 유명한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정부 고위관리 민영익을 당시 몇 개월 전에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선교의사 알렌이 성공적으로 치료해 줌으로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마침내 이듬해인 1885년 4월 한국에 설립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혜원이 이의 결과물인 셈이었다.

그러나 1895년 청일전쟁, 1904년의 노일전쟁에서의 잇따른 승리에 힘입은 일본의 정치 군사적 위세는 의료분야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후 한반도에서의 근대의학의 유입은 일본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의 한반도는 전체적으로는 전통의술에 의한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근대의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대의학의 개념 하에 치료될 수밖에 없는 외과적 기술의 경우 더욱

그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실사 외과적 기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날 까지 제대로 된 의료기록이 남아 오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대체적으로 역사적인 기록 자료들의 보관, 계승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우리나라의 그간 실정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유난히 골목이 많았던 우리의 근현대사와도 관계가 크리라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사건에 관련된 의학기록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상태의 환자가 오더라도 이런 정도의 기술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당시의 정국에서 한일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병합을 도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해 모든 힘을 기울여 치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를 비롯하여 전 정부가 기울인 관심도 대단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진으로서도 당연히 가급적 정확하고 상세한 의료기록을 남기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감정서가 이 사건에 관련된 재판을 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중요한 재판을 위해서 작성된 기록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전히 보관되어 남아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면 요즈음과는 달리 지난 100년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제대로 보관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 상해감정서에는 먼저 중요한 손상으로 자상에 의한 늑간동맥 절단 소견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진단서에서의 언급대로 과다한 출혈을 충분히 일으켰으리라 생각된다.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응급 처치가 시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당시 유혈이 낭자했었다는 표현 그대로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이완용 암살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한편 진단서에 기술된 병의 경과를 미루어 보면 늑간동맥 절단에 대한 처치는 결찰 등의 직접적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출혈 부위의 압박에 의한 자연 지혈로 추정된다.

진단서에서 한 가지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폐 손상에 대한 기술이다. 진단서에는 <폐를 손상하여 창공으로부터 출혈 및 호흡에 수반된 공기 출입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당시 폐 손상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폐 손상이 없이도 단순히 흉막이 자상에 의해 열리는

것만으로도 호흡에 따른 공기 출입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때 주위 혈관 손상이나 앞서 말한 늑간동맥 절단에 의해 흉막강에서 부터 피가 나오는 것과 같은 현상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만일 당시 실제 유의한 폐 손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외상성 기흉이 있었다면 상당한 정도의 호흡곤란이 생겼을 것이고, 이는 흉관 삽입에 의한 적절한 치료 없이는 자상 직후 현상과 이완용의 집에서 이루어진 응급치료 수준으로는 회생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상성 기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자연 흡수 치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폐 손상 여부의 진위는 지금에 와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주어진 소견만 가지고는 폐 손상이 있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완용의 상처에 관한 후세의 많은 기술에는 흔히 이재명에 의해 세군데 또는 그 이상을 찢려 자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4,6]. 그러나 이 진단서에 의하면 오른쪽 등에 있던 두 군데의 상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 자상에 의한 상처인 것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이완용이 입은 자상은 주 손상 부위인 왼쪽 어깨 부분과 함께 오른쪽 등 쪽의 두 군데가 정확한 것이다.

자상 후 이완용에 대한 치료는 당일 자택에서의 응급 치료 이후 다음날인 12월 23일에는 대한의원으로 옮겨져 시행되었다. 감정서에 의하면 입원 당일 날 상처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 창상으로 부터 혈액과 삼출물 배액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창상의 경과에 기술된 대로 현대 외과적 원칙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입원 약 한 달 후인 1910년 1월 20일에 타진 및 청진 소견에 근거하여 흉부천자술을 시행하여 무려 700 mL의 혈성장액을 배출하였다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정확한 이학적 진단 하에 흉부천자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뭇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혈성 장액 자체는 이전의 늑간동맥 절단이나 인근 혈관의 손상에 따른 출혈의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전체 삼출액이 혈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후차적인 반응성 삼출액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진단서 역시 배액된 혈성 삼출액을 외상성 늑막염에 의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감정서에는 최종 예후의 판단에서 외상성 늑막염의 치유 여부가 완전 회복의 관건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어쩔

든 결과적으로 이완용은 입원 53일 후인 1910년 2월 14일에 자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이재명에 의한 이완용암살 미수사건은 비록 이와 같이 미수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이재명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매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의해 그에 대한 꾸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에 대한 사실 기록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부정확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생연도, 이완용 암살 기도 날짜 등 기본적인 자료에서부터 거사 당일 군밤장수로 위장했느냐 여부와 기타 개인 신상 및 거사 동지들에 대한 기록 등의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혼선이 발견되고 있다[3].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역사적 실체의 파악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는 가장 사실관계 파악에 애를 쓴 것으로 판단되는 <박상우의 소설 칼>의 집필후기에 주로 근거하고 그 외 약간의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오류가 많은 것처럼 <이완용 암살기도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의학적 기술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는 그간 참고 되어왔던 각종 관련기록의 부정확성에도 기인하지만 설사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이 되었던 상해감정서와 같은 정확한 의학기록이 참고 되었다라든가 흉부외과적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 한 사건을 통하여 흉부외과학이라는 학문의 초기 모습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혹 당시 이 사건에서 이완용에 대한 치료의 주체가 일본인이었고 상해 감정서 역시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 의학기록>이라는 표현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한국을 무대로 벌어진 한국의 역사적 사건에 관련하여 기술된 의학기록은 그 기록의 주체가 누구였던 간에 한국사 관련 의학기록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 기술의 대상 자체가 혼돈의 시국 중에서도 민족의 정기가 살아 있었음을 지금까지 후세에 알려주고 있는 몇몇하고 자랑스러운 사건임에랴!

참 고 문 헌

1. 이성행. 흉부외과소사. 1989.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사. 2000.
3. 박상우. 칼. 창해. 2005.
4. 김삼웅. 의사 이재명의 삶과 죽음. 문학과 경계 겨울호 (통권 11호) 2003;411-36.
5. 병원역사문화센터. 동아시아 서양의학의 만나다. 태학사. 2008.
6. 김동산. 이완용 암살의거 수기. 신태양 1958년 9월 - 월간 중앙 2004년 8월에 서지연구가 김종욱에 의해 역사발굴의 형식으로 재게재됨.

=국문 초록=

1909년 12월 22일 당시 23세의 애국청년 이재명에 의해 이루어진 이완용 암살 기도 사건은 비록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민족정기를 크게 고취시켰던 사건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연관되어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당시 작성된 이완용의 상해감정서에는 여러 부분에서 의미있는 흉부외과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즉 늑골하연 자상, 늑간동맥 출혈, 폐손상, 좌흉부타박상, 외상성 늑막염 등의 전문적인 흉부외과 병명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리고 기흉과 혈흉을 의미하는 기술(폐를 손상하여 창공으로부터 출혈 및 호흡에 수반된 공기 출입이 있었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흉부천자술에 의한 혈성 삼출액 배출이라는 외과적 시술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여러 정황 분석 상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 의학기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사건을 통하여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 기록을 발굴,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중심 단어 : 1. 역사
2. 의학사